

# 전원주택 2천세대 조성 '활력 농촌' 변신

### 강진군, 신규 마을 조성·빈집 정비 각 1천세대 추진 인구 5만명 달성 위한 '농촌으로 장기 유턴' 시작

강진군이 고령화와 인구 유출 등으로 생기를 잃어가는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고 적극적인 인구 유입을 위해 신규 마을 조성·빈집 정비에 나선다.

강진군은 1일 "민선 8기 신(新)강진시대의 핵심 목표인 강진 인구 5만명 달성을 위해 신규 마을 조성 1천세대, 빈집 리모델링 1천세대 등 총 2천세대의 전원주택을 조성해 도시민 인구 유입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오는 11월까지 적정 위치·

빈집 리모델링 조사, 전원주택 조성 대상지 타당성 검토, 지역 정착 촉진을 위한 강진군 프로그램과 연계 방안 등에 대해 체계적이고 장기적인 세부 추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기본 계획 용역 결과 수립 후 신규 마을 대상지를 선정하는 한편, 관내 빈집을 전수 조사해 리모델링 대상지를 선정하고 공사비용을 지원, 건물 소유자와 장기 임대계약을 추진할 방침이다.

신규 마을 조성 중 일부는 8월부터 군

동 금곡마을 인근 20세대를 '독신자·여성'을 위한 단지로 조성하며 이 중 10세대는 은퇴한 여성 목회자를 위한 주택으로 100% 입주 예정에 있다. 주 거주자가 여성이라는 점을 고려해 가로등, CC TV 설치 등 범죄로부터 특별히 안전한 주거환경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밖에 신규 마을은 한 마을에 50~100세대 규모로 조성할 예정이다. 이는 당초 10~15세대에서 대폭 늘어난 규모다. 군은 단지 내 도로·상하수도 등 기반시설까지 지원한다.

현재 신전면 수양, 도암면 지석, 작천면 화동, 군동면 문화마을 인근에 신규 마을 4개소가 조성 완료됐으며, 강진읍 목리에 10세대, 군동면 금곡마을 인근 10

세대, 대구면 남호마을 인근 15세대 등 총 40여 세대는 올해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군은 신규 마을을 조성하는 데 그치지 않고 푸소 체험, 강진에서 일주일 살기 등 강진군의 대표 생활 관광 상품 운영 농가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소득 창출을 도와 농촌에서의 새로운 삶을 꿈꾸는 은퇴자 등이 강진의 '새 식구'로 정착할 수 있게 전방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빈집 상태에 따라 공사 비용을 지원하고 건물 소유주와 7~10년 간 장기 임대계약을 추진하는 빈집 리모델링 사업은 리모델링을 완료한 주택이나 조립식 주택을 농촌 유학생과 가족 등 이주 희망 주민들에게 저렴하게 임대해 농산



강진군이 농촌 마을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신규 마을 조성·빈집 정비에 나선 가운데 최근 강진원 강진군수가 직접 빈집 리모델링 사업 현장에 방문해 전원주택을 살펴보고 있다. <강진군 제공>

어촌 유향 프로그램 등 지역 내 안정적인 교육 수요에도 도움을 줄 것으로 보인다.

민선 8기 비전은 '일자리와 인구가 넘치는 新강진 시대 건설'로 전원주택 2천세대 조성은 기존의 체류형 농촌관광을 넘어 다양한 계층이 강진에서 자리 잡고 살아가는 '농촌으로의 장기 유턴'을 현실화하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강진원 군수는 최근 작천면 빈집 리모델링 사업 현장을 방문해 "전원주택 2천세대 조성 사업으로 지역 발전은 물론, 장기적으로 인구 유입을 촉진해 민선 8기 신(新)강진시대의 핵심 목표인 강진 인구 5만명 시대 달성과 관광객 500만명 유치를 이룰 것"이라고 말했다.

/강진=정영록기자



### 해남군 송호해변축제 성료

팡글바다의 낭만을 가득 담은 해남 송호해변축제가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해남군은 1일 "지난달 29일부터 31일까지 사흘 간 팡글마을 송호리 해수욕장에서 2022 해변축제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서진



지난해 9월 문을 연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지난달 20일 기준 20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며 월 평균 2억원의 매출고를 기록하고 있다. <해남군 제공>

##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 매출 20억 달성

### 개장 10개월 400여 소농가 참여...소득 향상·신선 먹거리 공급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이 개장 10개월 만에 매출 20억원을 달성했다.

지난해 9월 문을 연 해남군 로컬푸드 직매장은 7월 20일 기준 20억원의 매출 실적을 올리며 월평균 2억원의 매출고를 기록하고 있다.

로컬푸드 매장에는 매일 오전 7시부터 당일 생산된 신선농산물을 농가에서 직접 출하하고 있으며, 개장 이후 참여 농가가 지속적으로 늘어나 현재 관내 400여 농가에서 500여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특히 직매장 매출액의 90%는 생산농가에 직접 지급하면서 중소농가의 소득 향상에도 특효를 거두고 있다.

출하 수수료를 제외한 전액이 농가 소득으로 직접 지급된다 보니 지역 중소농가의 안정적인 소득 뿐만 아니라, 지역

경제 선순환을 구축하는 우수 먹거리 정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군은 연중 농산물 생산을 위한 이종하 우산 보급과 생산자 조직화, 출하 품목 확대 등 푸드플랜 생산자 기반 조성에도 총력을 기울여 소농 위주의 다품목 출하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직매장 출하 품목은 매일 농약 잔류검사를 통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지역의 신선하고 안전한 농수축산물을 손쉽게 구입할 수 있어 소비자들의 호응도 매우 높은 편이다.

또한 매일 소비자 초청 농가 체험, 어린이 장보기 체험 등 다양한 소비 촉진 활동과 함께 관광지 직거래 장터 등을 운영해 우수한 해남 로컬푸드를 홍보하는 데도 주력하고 있다.

해남군은 2018년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을 위한 국정과제인 지역푸드플랜 선도 지자체로 선정돼 '해남 2030 푸드플랜'을 추진하고 있다.

로컬푸드 직매장 건립은 푸드플랜 핵심 사업 중 하나로 관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소농가의 안정적 유통망 확보와 소득 향상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된 신선하고 건강한 먹거리를 지역에서 소비함으로써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내고 있다.

명현관 군수는 "로컬푸드 직매장이 구심점이 돼 지역 중소농업인들이 신선하고 안전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공급하고 소비자들은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모범적으로 정착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해남=박필용기자

##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 2배 증액

### 강진군, 예산 2억 추가 확보

강진군은 1일 "2015년부터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를 개설해 관내 농어업인들의 택배 직거래 경쟁력을 높이는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재 초록민음 직거래지원센터에는 608명의 농어업인이 참여하고 있으며 포장재, 택배비, 홍보물 제작비 등을 지원한다. 또한 농어업인을 대상으로 마케팅

대학을 운영해 농산물 유통과 판매에 대한 전문지식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강진군은 최근 물가 상승과 택배비 인상에 따른 농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택배비 지원 예산 2억여원을 추가 확보해 올해 총 4억여원을 지원한다.

택배비 지원 단가를 기존 1천500원에서 2천500원으로 인상했고 농가별 지원 상한금액도 연간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올렸다.

/강진=정영록기자



## 명현관 해남군수, 고수온 대비 양식장 점검

### 송지면 전복가두리·넙치양식장 방문...어장 관리 당부

명현관 해남군수는 최근 송지면 소재 양식현장을 방문해 여름철 고수온 대비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른 무더위에 바닷물 온도가 올라가며 양식장 피해가 우려되고 있는 가운데 현장 점검을 통해 명 군수는 고수온 대응 장비, 양식생물 생육상태를 점검하고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7월 말까지 전복 해상가두리 53개소(233어가), 넙치 육상양식장 11어가

를 대상으로 고수온기 양식방법별 양식장 관리 요령을 지도하고 고수온 대응을 위한 장비 등을 점검했다.

명현관 군수는 "예찰활동을 강화해 고수온으로 인한 양식생물 피해 예방에 총력을 기울이겠다"며 "어업인들도 조기 출하, 먹이 공급량 조절 등 적극적인 양식 어민들의 의견을 청취했다. <사진>

군은 고수온으로 인한 피해 최소화를 위해 7월 말까지 전복 해상가두리 53개소(233어가), 넙치 육상양식장 11어가

/해남=박필용기자

광주매일신문 전통시장활성화 연중캠페인

# 어때의 마음을 만나

## 문안열린 시장

# 광주말바우시장

말바우시장은 광주 북구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말바우시장'이라는 이름은 말 발자국 모양의 바위(말바우)가 있었다고 하여 붙여진 이름입니다. 현재는 그 말바위는 없어지고 건물들이 들어섰는데 그 건물 사이 골목을 중심으로 정다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2005년 광주시 북구청으로부터 인정시장으로 등록되고, 최근 2015년에는 중소기업청 "골목형 특성화 사업"으로 선정되는 등의 계속되는 발전을 보이고 있는 전통시장입니다. 담양, 곡성, 장성, 화순, 순창 등의 주변 시군에서 농민들이 직접 경작한 생산품을 가지고 나와서 물건을 파는 전통적거래 장로 보다 더 신선하고 믿을 수 있는 품목들이 많이 있습니다.

귀한 것만 **주고 싶은 마음**  
하나라도 **더 챙겨주는 마음**  
살가운 **정**이 있습니다!

전통시장이 주는 **1석 3조** 혜택을 누리보세요~!

<b>혜택1</b> 대형마트보다 20%나 저렴!	<b>혜택2</b> 온누리상품권 5% 추가 할인!	<b>혜택3</b> 사용금액 40% 소득공제!
-------------------------------	--------------------------------	------------------------------

**착한가격! 신선한 상품! 인심에 더하여 정(情)까지!**

시장구분 : 인정시장  
소재지 : 광주광역시 북구 우산동 190-9  
개설일 : 공식등록일 2005년

· 점포수 : 511개소 (노점상 900여개)  
· 시장면적 : 68,712m2(20,685평)

· 주요취급품목  
- 수산·견어물, 농산물, 식품·음식점, 축산·건강원, 의류·기타  
◆말바우시장 상인회 : 062-262-4082

주최 : **광주매일신문 · 광주매일 TV**

후원 : **광주광역시북구** GWANGJU CITY BUK-GU

문의 : 062)650-2099